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육성론적 함의에 관한 연구*

-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적 접근에 대한 시론 -

이 광 호**

이 연구는 학교 주5일제가 갖고 있는 청소년육성의 의미가 무엇이며, 청소년정책에서는 어떤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학교 주5일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인프라론적 접근의 의미, 청소년기에 대한 평생학습차원의 접근 필요성 및 자유시간 확대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여유를 돌려주는 여가론적 의미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학교 주5일제의 도입은 학교 교육과정 편제상에서 특별활동 등 비교과 과정의 감축 내지는 폐지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이는 학교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청소년육성에 커다란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주5일제는 청소년의 생활에서 내부 놀이형의 활동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사회인프라 구축에 앞서 청소년을 다양한 체험기회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해 청소년육성 분야에서는 아동에서 자립적 성인으로 이행하는 이행과정으로서 청소년기에 대한 포괄적 이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가와 일과 공부를 융합하여 체험으로 학습하는 발달과업의 통합적 인식 등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와 발달과업에 대한 수평적 · 수직적 인식 확대를 통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1. 문제의 제기

최근 우리 사회에는 생산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의 도입 시기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주5일 근무에 대한 논의는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근로제도 개선’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되어, 19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의 일환으로 임금,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되면서 가속화되었다. 1998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0년 10월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내놓으면서 주5일 근무제는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근무시간 단축의 실시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노사간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2001년 7월 정부가 소비 진작, 산업 활성화 및 근로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의 필요성을 개진하는 등 조기 시행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근무시간 단축 논의는 더욱 가열되었던 것이다(참조: 민승규 외, 2001).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주5일 근무제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시기와 방법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매우 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 내에서도 일일고용이나 중소기업체 등 고용 형태나 사정에 따라 한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국내외의 경제 여건의 악화나 여소 야대 등의 정치 구도의 변화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시기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주5일제는 주5일 근무제 논란에 묻히거나, 역으로 비교적 논란이 적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정부부처내의 입장에 따라 도입 시행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교 주5일제 시행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 교육이나 발달의 관점에서보다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 시기와 방법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¹⁾. 또한 학교 주5일제의 시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이나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우리 사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학교 주5일제의 시행은, 그 시기는 다소 조정되겠지만, 제도 자체는 언젠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당면과제임에 틀림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학교에 한해 1970-80년의 자유학습의 날, 1990년대의 책가방 없는 날로 토요일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1997년도 이후 본격적인 학교 주5일제의 시행에 대비해 오고 있다. 즉 1997년부터 주5일제 수업 시범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체제 개선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 관련 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단계적인 시행을 준비(교육부, 2000)하고 있다. 특히 1998년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수업일수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연간 22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및 연구자율학교 운영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²⁾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 정책당국의 입장으로 미루어, 우리 사회에서 학교 주5일제는 중국³⁾과 같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보다는 일본의 사례⁴⁾와 같이 주5일 근무제가 정착과 함께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별 주5일제 실험학교를 단계별로 확대 운영해 가면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 주5일제 적용을 위한 정책연구와 함께 각종의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후,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초등학교에서부터 상급학교로나 아니면 월1회 → 월2회 → 완전 실시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참조: 교육부 학교정책과, 2000).

어쨌든 주5일 근무와 학교 주5일제의 도입은 단순히 주당 하루를 더 쉬거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주휴 2일 이상의 사회적 ·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학교 주5일제 도입은 청소년과 우리의 생활양식 변화를 비롯하여 삶의 전반적인 틀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특히 학교 주5일제의 시행은 청소년의 생활, 청소년에 대한 가정 · 지역사회의 역할 및 기존의 청소년활동이나 정책의 틀은 물론 서비스의 방법과 내용 자체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우리 사회와 같이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외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육성'이라는 영역(youth work system)을 별도로 제도화해 놓고 있는 경우, 학교 주5일제의 시행은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의 경계영역에 있는 각종 청소년활동의 변동과 아울러 청소년육성 환경의 기반 자체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 주5일제의 도입이 청소년의 여가시간을 비롯한 생활 전반에 미칠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혜를 모아가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학교 주5일제가 청소년육성론적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새로운 정책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등은 청소년 정책분야의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고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제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물음에 대한 해명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첫째, 학교 주5일제가 가지는 청소년육성론적 의미와 기대는 무엇인가 둘째, 학교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청소년육성 기반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어떻게 변화되어 질 것이며, 아울러 청소년의 일상생활 특히 주휴 2일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가 셋째, 이러한 논의들 기반으로 학교 주5일제 시행에 대비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적 접근에 대한 시론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II.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육성론적 의미 부여와 기대

일반적으로 학교 주5일제의 도입은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 주5일제를 교육학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특히, '제3의 교육개혁' 혹은 '학교 주5일제의 교육학'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학교 주5일제 도입의 취지와 기대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사창초등학교, 1997: 5-6 ; 장이권, 1997 ; 정동철, 1996 ; 정광희 외, 2000: 19-23). 첫째, 청소년에게 생활의 여유를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자기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여유 있는 생활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풍부한 자기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놀이, 자연체험, 사회체험 및 생활체험 등의 기회와 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학교 주5일제는 교실 공간에서 관리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직접적인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학교 주5일제는 학교 수업일수를 하루 줄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에서 교육이나 체험활동 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새로운 '가정 · 지역 교육 내지는 체험학습의 2일제'로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주5일제 실시를 계기로 학교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 관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지금까지 과도한 학교편중경향에 의해 본래의 교육 모습이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가정 · 학교 · 지역사회 교육간의 형평을 회복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을 서로 확인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결국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교육의 위기의식 고조에 따른 학교교육의 한계를 인식하여 학교교육 개혁을 통해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학교 주5일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 주5일제는 기존의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 습득 중심의 학습관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지식이나 기능의 공통적인 습득을 중시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한 양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학교 주5일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각자의 흥미, 관심, 의지에 의해서 학습하는 영역이나 과제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등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과 창조적인 태도 등 이른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핵심역량을 배양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 주5일제가 지향하는 교육적 취지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5일제 시행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회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교육부, 2000 ; 下村哲夫, 1998: 18 ; 室井健一, 1999). 첫째, 수업일수 감소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수준저하에 대한 염려이다. 실제 학교 주5일제가 시행되면

주당 단위시간수가 줄어들게 되고,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고등학교 등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나 학교당국의 학력저하에 대한 염려는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 학교 밖에서 청소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인프라의 부족에 대한 우려이다. 청소년의 체험학습,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절대 부족하며 관련 기관간의 연계 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주5일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쉬는 토요일은 청소년에 대한 지도 공백을 초래하거나, 또는 학원수강 등 사교육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염려이다. 셋째, 맞벌이 부부 자녀 등 가정의 생활지도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학교 주5일제를 주5일 근무제 정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차원에서 다른 부문보다 우선 시행하거나 주5일 근무제가 전 직종이나 작업장에 전면 적용되지 못할 경우, 가정에 부모가 없는 '나 홀로 아동이나 청소년' 등으로 방치되어 생활지도에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문제로 대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넷째, 사회적 빈부격차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1회 휴일이 더 늘어남으로써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종 청소년의 문화나 일상 소비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증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상과 같은 학교 주5일제에 따른 사회적 준비부족이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염려들을 포괄하고 뒷받침하는 학교 주5일제에 대한 교육적 의미 부여와 이념적 접근 경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참조: 室井健一, 1999: 134-135 ; 田中治彦, 1994). 첫째, 학교 수업일수의 감소에 따른 청소년들의 체험욕구와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인프라를 강조하는 접근 경향이다. 사회적 인프라를 염두에 둔 접근에는 학교교육의 위기 인식과 개방(열린 학교)에서부터,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기능 회복과 역할 증대 및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이들의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청소년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선택과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포함된다. 특히 이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는 학교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학습자원과 교육자원이 있다는 사실과 이들 자원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휴일이 청소년발달에 긍정적 의미

를 가지기 위해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선택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활동을 선택하여 진력할 수 있도록 배려 · 조연 · 원조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교가 가진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궁극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감각을 회복하는 열린 학교를 주창하기도 한다.

둘째, 학교 주5일제의 교육적 의미를 청소년과 관련된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다. 이들은 학교 주5일제 시행이 학교에서 교육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폭넓게 이해하여 청소년의 평생학습을 정식으로 추진하려는 제1보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학교에서 독점해오다시피 하여온 교육체제를 정상화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소양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닐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 학습하는 방법(方法知)을 학습하여야 한다는 시각에서 학교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에 주목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단순히 지역사회의 각종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회 인프라론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그 보다는 어떤 지역환경을 만들어 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평생학습론적 접근에서도 현재보다 훨씬 강한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사회교육적 관점에서 학교의 새로운 기능 정립과 학교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여가 혹은 자유시간의 관점에서 학교 주5일제를 인식하는 경향이다. 이들은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사람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생활의 여유를 회복하여, 질적으로 충실한 여가와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도 아무런 구속이 없는 주휴 2일의 기회를 부여하고 충실한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요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여가교육의 부재와 자유 재량능력의 부족을 열려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의식변화와 여가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상과 같은 학교 주5일제에 대한 교육적 의미부여와 이념적 접근 경향들은 서로 강조하는 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이 21세기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준비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교 주5일제에 대한 이념적 접근 경향들은 학교 주5일제에 대한 청소년 관련 이론과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설정을 위한 주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III. 학교 주5일제 시행과 청소년육성 기반의 변화 전망

앞에서 살펴본 학교 주5일제의 교육적 의미와 기대 혹은 예상되는 우려를 종합해 볼 때, 학교 주5일제 시행은 일반적 수준에서 청소년의 생활과 학습 및 체험 기회 등 전반적인 청소년육성 기반 차원에서 긍정적인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여유 시간의 증대로 학교 밖 청소년활동 수요가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역으로 평일 공부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창의적인 체험활동에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상반적 예상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및 제도적 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청소년단체활동을 비롯한 수련시설 중심의 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 체제는 학교 주5일제의 시행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적지 않은 구조적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주5일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육성 기반의 변화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현행 청소년육성 체제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업일수나 수업시수의 감축과 같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일본의 변화 사례에 비추어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과연 학교 주5일제가 시행되면 청소년의 생활시간과 체험활동의 요구나 실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전망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 학교 주5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자료 입수가 가능한 몇몇 국가의 실태 조사 사례 등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추론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교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육성 기반의 변화 전망은 학교 주5일제 시행으로 기대되는 교육이념적 실현과 청소년정책 기반의 현실이나 실태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정책적 기초작업의 일환이다.

1. 학교 주5일제 시행방법과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 전망

현재까지 학교 주5일제 시행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계 전반의 견해는 주5일 근무제 정착 상황,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 점진적 ·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참조 : 교육부 학교정책과, 2000 ; 정광희 외, 2000). 따라서 특별한 교육 외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학교 주5일제 시행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아울러 초등학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월1회 시행 → 월2회 시행 → 수업일수 감축(관련 법령 개정) → 완전 시행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학교 주5일제의 완전 시행 혹은 학교 수업일수나 교육과정에 대한 법령 개정과 시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와 유사한 교육과정 편제와 수업일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 현행 초 · 중등학교의 수업 시수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 · 중 ·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주6일 수업에 연간 220일 이상이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98년에 주5일제 수업의 실시 등을 염두에 두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10%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소 198일까지 수업일수를 줄여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토요일을 '책가방 없는 날', 혹은 '전일제 특별활동(CA활동)' 실시 등으로 운영하는 등 상당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월 1-2회의 학교 주5일제 시행은 큰 충격이나 중요 없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의 초 · 중등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기준 수업

시수 보다 많은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업일수를 줄여 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표 2 : 제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시간(단위) 배당 기준

그런데 문제는 학교 주5일제를 완전 시행할 경우, 현행과 같은 수업 시수와 교육과정 편제의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즉, 완전 학교 주5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제45조)과 현행 교육과정 체제를 개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업일수 감축 등 시행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참조: 교육부, 2000)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수업일수 감축 방안은 첫째, 현행 220일 이상(토요일 34주)을 180일로 감축하는 방법 둘째, 198일로 감축(현행 10% 감축 범위를 일반학교로 확대하여 22일을 감축)하는 방법 셋째, 현행 수업일 중 토요일 수업시간인 연간60~70단위를 감축하는 방법 등 세 가지 정도로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 주5일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표 2>와 같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수업 시수의 어느 정도 감축과 개편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 개편 양상은 2002년 4월 신학기부터 완전 학교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개편 사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첫째, 교과 영역의 일부 시수 감축과 함께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수의 감축이나 축소 조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즉,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2년 학교 주5일제의 완전 시행에 대비하여 1998-99년에 걸쳐 각각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을 개정6)한 바 있다. 학교 주5일제 완전 실시와 동시에 2002년도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서 일본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 시수를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70시간 감축하고, 교과외 일부 수업 시수와 특별활동의 축소와 시수의 감축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로 미루어 비슷한 교육과정 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경우에도 유사한 개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우리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이 일본과 유사하게 활동집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교활동 및 단체활동(교교)등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구분 없이 1개의 총괄목표를 제시하고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5개 영역(자치, 적용, 계발, 봉사, 행사활동)으로 나누어 시행7)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과 같이 클럽활동과 같은 특정 활동을 제외하는 방법보다는 아마 특별활동 구성자체를 다시 변경하거나 각 영역별로 과거 클럽활동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일부 활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소지가 많다.

표 3 : 일본 새 학습지도요령에 의한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및 수업 시수 변화

만약 이와 같은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이 중 · 고등학교의 특별활동에서 클럽활동을 제외한 본래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과거 클럽활동과 유사한 성격의 활동이나 이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온 활동(각주 7의 <표 4>참조)들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와 같이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일부 청소년수련활동이나 단체활동 등과 같은 활동 영역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구조 변동이 불가피하다.

표 4 : 현행 특별활동의 구성과 활동 예시

둘째, 학교 주5일제 시행방법의 또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 편제를 개정하여 주휴 2일의 하루를 '휴업일 활동' 등의 개념으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법이다. 즉,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 다시 네 번째로 휴업일 활동(혹은 체험활동, 자유탐구활동) 영역을 신설하여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휴업일 활동영역이 신설된다면 앞의 첫 번째 조정방향에서 축소 내지는 제외된 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 내용들이 이 영역에 포함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휴업일 활동은 주로 체험활동보고서 등의 형태로 개별 학교에서 관리 운영되도록 할 가능성이 많다.

이상과 같은 학교 주5일제의 완전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교육과정 편제개편이나 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건 간에 기존의 청소년수련활동과 단체활동을 비롯한 청소년육성 기반의 구조나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특히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실시되고 있는 집합적 수련활동은 반드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학교와 연계하여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 전망에 대한 치밀한 정책 연구와 아울러 청소년육성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지한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2. 학교 주5일제 시행과 청소년의 생활 변화 전망

학교 주5일제에 대한 교육이념적 접근 경향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주휴 2일은 청소년에게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여유는 대부분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을 통한 체험활동 참여 등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데 투입될 수 있기를 기대하거나 가정하고 있다. 우리도 상식적 수준에서 학교 주5일제의 시행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증대시켜 주고,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도 다소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 주5일제는 이러한 이념적 기대와 취지와 같이 현실적으로도 청소년의 생활에 여유를 주고 활동 참여욕구를 증대시켜줄 것인가. 이에 대한 간접적인 답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청소년의 생활과 활동 실태의 변화와 전망을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등 3국의 사례(8)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오스트리아의 경우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주5일제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청년들의 생활은 토요일에 수면을 좀더 취할 수 있거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다소 증가하고, 휴식시간의 증가 등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당초 기대와는 달리 평일 학업부담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 모두 학교 밖의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청소년의 생활 양상은 학교 주5일제를 전격 도입한지 5년 정도 경과한 중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북경 시내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략 조사한 결과(<표 6> 참조)를 보면, 쉬는 토요일을 주로 보충수업이나 공부 등으로 보내고 있으며 TV를 보거나 취미 생활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리고 주말을 주로 부모와 보내거나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높아 친구와 함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일 학업부담에 대한 인지 정도는 절반 이상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조사결과는 대상이 고등학생이며, 우리 사회와 같이 대학입시를 향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학교 주5일제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고등학생의 생활을 추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표 5 : 인스부르크 김나지움의 학교 주5일제 시범 운영 결과 학부모의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 비교(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와 중국에서 학교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의 쉬는 토요일 생활이나 인식에서 나타나는 실상들은 완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교육제도나 학력 경쟁 등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상황이 우리와 매우 유사한 일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월2회 학교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던 1997년도 소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휴일 토요일 활동내용, 함께 활동한 사람 및 활동한 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주로 자기 집에서 TV나 비디오 시청과 게임 등 집안에서 하는 놀이형이 많았다. 오전에 비해 오후에는 휴식형과 집 바깥에서 놀거나 산보하는 활동이 다소 늘어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내부 놀이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표 6 : 학교 주5일제 시행과 청소년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중국)

표 7 : 학교 주5일제 시행의 휴일토요일의 청소년 생활과 활동실태(일본)

소학교만이 아니라 유아와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1회와 월2회 쉬는 토요일을 보내는 형태를 비교한 결과(<표 8> 참조)에서도 내부 놀이형이 많은 비슷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지 월1회 쉬는 토요일의 경우 오전, 오후 모두 집 근처에서 놀이나 운동, 산보 등 바깥에서 노는 활동이 많았지만, 월2회 쉬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노는 활동은 적어지고 있다. 이는 아마 주휴 2일 중 하루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학교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월1회, 월2회 실시하는 등 횟수에 따라 휴일토요일을 보내는 활동 내용이나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노는 내부지향적 경향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노는 토요일에 적지 않은 청소년이 TV나 비디오 시청, 라디오와 CD 청취, 독서나 TV게임 혹은 컴퓨터 등 '집안에서 놀거나 휴식을 취하며 기분을 전환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 학교 주5일제에 의한 휴일토요일의 청소년 주요 활동 내용(상위 3개 항목 비교, 일본)

그렇다면 일본의 부모들은 청소년이 무엇을 하며 쉬는 토요일을 보내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학교 자녀들 둔 부모는 여유, 계획한 생활, 체험활동 순으로, 그리고 중학생 학부모의 경우 계획한 생활 가족과 대화, 취미나 특기 연마 순으로 높은 가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주5일제 시행의 목적에서 기대한 바와 같은 지역의 활동에 참가하거나 도서관이나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시설에 가서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山田兼尙, 1998 : 48-51)도 확인할 수 있다9).

그리고 부모와 청소년들이 토요일을 유효하고 의의 있게 보내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33.2%,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0.8%, 부모는 유효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7.0%, 역으로 청소년은 의의 있게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5.7%로 조사(山田兼尙, 1998 : 48-51)되고 있다. 쉬는 토요일의 생활에 대해 부모와 청소년의 의견이 일치하는 비율이 일치하지 않은 비율보다는 다소 높고, 부모에 비해 청소년 자신들이 의의 있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자신에게 더 허용적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학교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시행하며 장단점을 분석하며 준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의 청소년의 실상에 대한 몇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학교 주5일제를 통해 당초 예상한 이념적 혹은 정책적 기대가 현실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엿보게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학교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쉬는 토요일이나 휴업일에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

과 학부모들의 예상활동에 대한 조사결과(정광희 외, 2000)를 보면 외국의 사례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9 : 학교 주5일제 휴업일에 예상되는 청소년의 희망활동과 학부모의 예상활동(한국)

<표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과 부모의 예상활동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은 취미와 특기개발이나 게임이나 TV시청을 바라는데 반해 학부모는 주로 게임이나 TV 시청 혹은 교과학습 보충심화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동아리 등 집단활동에의 참가희망이나 예상은 낮았으며, 가족과의 시간에서도 청소년 자신과 학부모의 예상은 크게 어긋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학교 주5일제의 본래 취지와 기대와는 달리 청소년은 너무나 여유 없는 생활이나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피로해 있어 주휴 2일 중 하루는 그냥 무언가를 잊거나 쉬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마냥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지내는 경향을 보여 줄지도 모른다¹⁰⁾. 그러므로 학교 주5일제의 시행에 따른 본래의 취지와 기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 참여나 각종 체험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목적 의식을 갖게 하고, 자발적 선택과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의식과 행동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학교 주5일제의 기본 취지와 이념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육성 분야에서는 학교밖에서 무슨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어떤 성장과 발달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학교 주5일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와 실상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정책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III. 학교 주5일제에 따른 청소년육성의 새로운 접근의 시도 :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적' 접근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학교 주5일제의 시행이 주휴 2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청소년정책의 대응 방향도 단순하게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예방이나 체험활동 기회의 다양화 차원에서 사회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대응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학교 주5일제에 따른 청소년육성의 새로운 접근은 청소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와 치우 방식의 재검토 등과 같은 시각 정립과 확대에서부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 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적 접근'이 될 것이다.

학교 주5일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청소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관점과 그들과 관계를 맺어 가는 사회적 치우 방식의 변화이다.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나 실천 노력들의 대부분은 청소년을 성장기에 있는 무언가 부족한 존재 내지는 잘 관리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나쳐 넘칠 수 있는 위험성을 잠재한 존재(부족 모델 혹은 공중위생적 접근) 등으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 수동적 시혜로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등으로 부족을 보완해주거나, 넘칠 위험이 있는 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예방 · 치료 · 교정 등 개입 위주의 사회적 치우를 강조한다. 결국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기 사이의 특정 시기의 과도기적 존재로서 각 발달단계별로 설정되어 있는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이 경우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이탈하고 있는 청소년은 정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일시적 이탈이나 과업의 미완수와 같은 실수나 일시적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청소년이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 - 폭력, 가출, 자살, 혼전 임신, 약물, 비행 등 - 에 주목하여 그들은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참조: 이광호, 2000). 특히 이들은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처방이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잔뜩 만들어 놓기를 바란다. 결국 이들은 '소비로서의 청소년서비스(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일)'에 치중한다.

이제 학교 주5일제 도입의 청소년 교육적 의미는 지금까지 빈틈없고 실수 없이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청소년의 존재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21세기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유연한 역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저장 중심의 지식습득에서 탈피하여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체득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체험을 통한 지식, 실수와 실패를 통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과업 완수를 더 중요시 여긴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의 소비적 참여보다 청소년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생산과 창조로서의 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보다 강조한다.

결국 [그림 2] 에서 볼 수 있는 바 같이, 학교 주5일제가 청소년육성에 요구하는 청소년에 대한 존재인식은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해 가는 존재로서 포괄적으로 이해된다. 청소년기는 준비된 성인 즉 사회적 의 존상태에서 벗어나 자립할 있는 소양과 자질 및 역량 등의 요건을 갖추어 가는 이행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행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과정(Cole,1995: 8 ; 최윤진, 2000: 280)을 중요시한다. 첫째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과정에서 취업으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둘째, 태어난 가정에서 결혼 등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으로의 이행(the domestic transition) 셋째, 부모와 함께 사는 거주지에서 독립적 거주지로의 이행(the housing transition)등이다.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적 접근에서는 바로 청소년이 이러한 자립으로의 과정을 원활하게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곧 평생학습 차원에서 청소년기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학습 차원의 청소년기에 대한 인식의 확대

는 생애 과업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생애 과업 측면에서 과거와 같이 청소년기에 주로 공부하고, 성 · 장년기가 되어서는 일하며, 노년기에는 휴식을 취하는 생애의 분절적이고 세대별로 과업 배분되어진 형태로서가 아니라 청소년기, 성 · 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 전체에 걸쳐 일과 공부와 여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과업 형태를 지향(이광호, 2001)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도 일과 공부와 여가가 어우러져 체험이라는 형태로 학습되어지는 소위 체험활동이나 학습이 강조되는 것이다.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은 이러한 일과 여가와 공부의 통합으로서 체험 형태를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적 접근은 청소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 요소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역사회의 환경적 맥락은 청소년이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와 대상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자신의 사회적 세계에서 경험할 상호작용의 유형과 질에 영향을 주고, 또한 자신의 정체감 형성과 존재에 대한 가치의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청소년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의 주요한 요소는 크게 지역사회의 문화, 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도의 존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단체 자원의 이용 정도 등을 포함한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7).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일수록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성인들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지역사회 둘째, 청소년의 발달에 대해 공감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셋째, 부모가 아닌 성인들도 함께 청소년을 모니터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넷째, 청소년을 위하여 성인들 사이에 상호 책무성이 존재하는 지역사회 등이다. 그리고 부모가 아닌 지역사회의 다른 성인들이 청소년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는 청소년발달을 촉진하는 또 다른 주요한 환경적 생태계라는 사실을 중시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밀접하게 연계 · 통합시키는 일은 학

교 주5일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 과제이다.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연계 · 통합은 청소년은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고, 지역사회는 청소년에 양질의 활동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win-win)적인 관계의 설정을 포함한다(참조: Pittman, 2000). 이것은 곧 청소년과 부모를 포함한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청소년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자기 만족감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재건설(community rebuilding)하는 일이다. 청소년의 힘과 에너지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재건설은 청소년발달과 개발에 초점을 두고, 공동의 비전과 미션을 지향하며, 조직과 서비스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강조하는 새로운 지역의 조건을 변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적 접근의 기본적인 시각은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위상 정립과 수평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근거를 두고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아우르는 동시에 여가와 일과 공부를 통합하고 포괄하는 공간과 과업에 대한 수평적 인식의 확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적 의미는 청소년을 각종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21세기에 요구되는 각종 자질이나 소양을 준비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청소년기에 시작하여 평생에 걸쳐 체험을 통해 학습하며 살아있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가는 것이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적 접근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최대의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문제예방이며 보호(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기본 신념으로 삼는 것이다.

IV. 결 론

학교 주5일제의 시행은 이제 도입 시기에 대한 논란만을 남겨놓은 채 우리의 선택 문제아니라 우리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변화는 곧 학교 주5일제에 대해 청소년정책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방향 설정 작업과 직결되어 있다.

학교 주5일제는 청소년교육에서 첫째, 기존의 학교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학교교육의 개방과 학교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구조를 개편하고 아울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확대는 사회 인프라 문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에서 청소년교육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학교교육 독점의 교육체제를 정상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소양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닐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셋째, 학교 주5일제를 자유시간 관점에서 이해하고 청소년에게 보다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로서 여유를 주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학교 주5일제는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영역화 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에 적지 않은 충격과 지각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즉, 청소년육성기반으로서 학교교육과정 편제 변화는 일부 교과목이나 특별활동 등의 축소 조정이나 폐지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학교 주5일제 도입은 지금까지는 학교교육에 속해 있었지만 '학교교육'과 제도화된 틀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육성' 그리고 '사회교육' 등의 한계 영역에 놓여 있던 많은 것들이 재편되는 과정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과외 클럽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봉사활동 등은 그 재편과정의 핵심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재편과정에서 청소년육성이라는 제도적 분야는 과연 지금까지의 학교 의존적 틀에서 벗어나 공적·제도적으로 시설이나 지도자를 배치하면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자발성과 민간성을 위주로 하는 사회교육의 특징을 더욱 살려가며 대응해갈 것인가 등의 결단을 요구받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주5일제의 도입으로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학교 주5일제 도입으로 청소년들은 컴퓨터나 실내형 오락 등 실내 지향적 놀이나 활동에 치중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구축에 노력하기에 앞서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학교 주5일제의 도입이 청소년육성 분야에 주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체험활동을 통한 살아있는 지식을 체득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지역사회체제를 구축해 가는 일은 청소년정책의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학교 주5일제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과제 달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치우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수직적으로는 청소년을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인식하며, 수평적으로는 여가와 일과 공부를 통합하여 체험으로 학습하는 융합적 사고와 확대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생학습 차원에서 청소년기에서부터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일이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가정과 학교 및 제도적 영역으로서 청소년육성이 청소년의 학습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청소년교육의 중심 이동이다. 이러한 청소년과 청소년 발달 과정에 대한 수평적 · 수직적 인식 지평 확대와 접근 방식이 바로 학교 주5일제가 청소년육성에 던지는 의미 부여인 동시에 '학교 주5일제의 청소년정책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Youth Work contained in the 'Five School-Day System'

Lee, Kwang-H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Five School-Day System in the meaning of youth work system and to examine what approaching ways is required in youth policy. The Five School-Day System is the meaning of social-infra approaching in which various opportunity of experience has provided and has the leisured meaning and expecting that returns spare time to youth for youth and approaches lifelong education and expand free time in youth.

Meanwhile, the introduction of Five School-Day System has a strong possibility abolishing special activity in processing school education and demand constitutional improvement into youth in basic of school education.

Then, The Five School-Day System is a strong probability that increase the activity of indoor playing in youth life. Thus, family, school and community have to require much efforts in common that provide in various opportunity of experience to youth before constructing social infra. Especially, the field of youth work require to understand the youth comprehensively and need to recognize development duty unitedly that study by centering at regional community is harmonious experience in leisure, work, study. Thus, we can call approaching youth policy of Five School-Day System that is new approaching way through expanding recognition of

horizontality and verticality.

주석* 이 연구는 2001년 10월 19일 문화관광부와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경산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에서 주관한 '2001 청소년 건전 육성 지역대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원고(학교 주5일제에 따른 청소년육성 정책의 방향)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주석**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주석1)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 주5일제는 당초 일본인이 지나치게 일한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자, 공무원의 '4주 6휴'의 실현을 위한 한 방편으로 본격 논의 · 도입되기에 이르렀다(田中治彦, 1994: 4)고 한다.

주석2) 현행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는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호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매 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석3) 중국은 1994년 노동시간의 국제적 조류와 국영 기업의 경영 합리화라는 표면적 이유 이외에도 근로시간단축에 의한 내수 확대와 주휴 2일을 활용한 근로자의 전직을 위한 기능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주5일제 노동'을 발표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남녀 각각 55세와 50세로 조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1994년 7월 '주40시간 노동제 이후 전국 전일제 중 · 소학교 교육과정의 부분 조정에 관한 의견'을 반포하여, 1995년 가을학기까지 전국의 모든 초 · 중등학교가 학교 5일제를 도입 · 시행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학교 주5일제는 사전의 충분한 논의나 준비 없이 1995년 9월부터 시행

된 것이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학교 주5일제 도입은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개혁 개방화 이후 날로 가열되고 있는 교육열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학원 등 사교육 급증과 사회 인프라의 부족 및 빈부차이에 의한 문화적 격차 등의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게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참조: 정광희 외, 2000: 88-97 ; 교육부, 2000).

주석4) 일본의 경우 1987년에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감축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1989년부터 문부성이 학교 주5일제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3월 국가공무원 완전 주휴 2일제 법안이 성립된 직후인 그해 9월 매월 제2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월1회의 학교 주5일제를 실시하였다. 1995년 4월에는 매월 2, 4토요일을 쉬는 월2회 학교 주5일제로 확대 실시하고, 1998년 7월에는 현행 수업일수 중 토요일 수업시간인 연간 70단위(주당 2단위 정도)를 감축하였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완전 학교 주5일제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참조: 교육부, 2000 ; 정광희 외, 2000: 26-37). 한편 일본은 2002년도부터의 완전 실시를 앞두고 그 준비 차원에서 1998년 아동의 다양한 체험기회와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전국아동플랜'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준비에 착수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경우 학교 주5일제는 약 10여년간에 걸쳐 월1회 시행→월2회 시행→수업일수 감축→완전 실시 등의 단계적 시행을 거친 셈이다.

주석5) 최근 주5일 근무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내년 3월 봄학기나 늦어도 가을학기부터 단계적으로 학교 주5일제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제 시행시기나 방법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주석6) 일본은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면서 학교 주5일제 완전 실시를 위해 수업시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특별활동의 구성을 축소 조정하여 2002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소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활동을 현행과 같이 학급활동, 아동회활동, 클럽활동 및 학교행사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현재는 학습활동, 생도회활동, 클럽활동 및 학교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 후에는 클럽활동을 특별활동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현행 흠뻑활동, 생도회활동, 클럽활동 및 학교행사등에서 클럽활동을 제외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클럽활동을 폐지하는 이유는 '방과후 등의 부활동이나 학교외 활동과의 연관, 새로 신설된 통합학습시간에 학생의 흥미 · 관심을 이끌어내는 주체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등을 고려하고, 부활동이 더욱 절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敎育課程審議會, 1998). 이렇게 볼 때, 일본의 경우 수업 시수의 감축이 일부 교과외의 시수 감축과 더불어 주로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 중 클럽활동을 폐지하고, 그리고 소학교의 경우에는 클럽활동은 그대로 두되 특별활동의 수업 시수를 7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석7) 제7차 교육과정상의 특별활동은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한다'는 총괄 목표 하에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중심으로 5개의 하위 목표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여 각각 소영역과 예시활동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敎育部, 1997).

주석8) 이 3개국을 선정한 이유는 관련자료 입수가 가능한 국가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학교 주5일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도입한지 오래되지 않은 국가로서 문화적 · 교육적 상황이 우리와 유사한 경우 등으로 시행 초기단계에 나타나는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생활과 활동실태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는 현재 학교 주5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장단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는 인스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한 김나지움이 2000년 5월 학교 주5일제에 대한 1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펴낸 결과보고서 내용의 관련 자료이다. 일본과 중국의 학교 주5일제 시행은 앞서 언급한 그대로이다. 일본의 관련 자료는 연

구자들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이며, 중국의 관련 자료는 해당 보고서의 집필자가 직접 조사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는 학교 주5일제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일부 국가에서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 하게 밝혀 둔다.

주석9) 학교 주5일제를 실시하기 직전인 1992년 2월에 일본 三重縣教育委員會에서 소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학교 주5일제가 실시될 때 부모들은 자녀들이 휴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스포츠를 한다, 가사 심부름 등 근로체험을 한다, 공부를 한다 등을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단체활동이나 봉사활동의 순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中西智子 外, 1999: 1).

주석10) 쉬는 토요일이 월 2회로 늘어난 1996년 일본 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가 펴낸 '유아 · 아동 · 청소년의 학교 외 활동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 주5일제로 '여유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미나 좋아하는 것을 할 시간이 증가하였다거나 친구와 노는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순으로 나타나 학교 주5일제 도입후 5년간에 아동들은 스스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中西智子 外, 1995: 1-2).

주석*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